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잠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4

199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잠언, 전도서, 아가서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임 담임목사를 속
히 허락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
으로 드리지도록
4.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5.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6.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
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7.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8.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
루어지도록
9.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7년 4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전도서, 아가서 서론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낱말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세상의 권세나, 인기, 명예나 명성, 쾌락 등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불가피하게 부딪혀 오는 가슴의 공허함을 인생들은 스스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로 상징적인 표현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비유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남녀의 사랑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조

전도서	아가서
1.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들(1-3장)	1.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1-2장)
2. 인생의 실재(4-10장)	2. 신부에게 사랑을 구함(3-7:9) 1차(3:1-5:8) / 2차(5:9-7:9)
3. 결단예의 촉구(11:1-12:8)	3. 신랑을 거절하는 신부(7:10-8:4)
4. 맺음 말(12:9-14)	4. 신부와의 재결합(8:5-14)

1

(화) 지혜로운 교육의 여러 단계

찬송 / 463장 본문 / 잠 29:1-2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29:17)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면 가정이 서고, 백성을 정직히 가르치면 국가가 흥왕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유순한 말로 훈계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첫 단계는 유순하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도 먼저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신 후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엄히 경책하셨습니다

둘째, 꾸지람을 주어야 합니다. 종에게 일을 시키는 데에도 엄한 꾸지람이 필요하듯이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꾸지람이 적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로 빠졌을 때 엄히 꾸짖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시 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 하면 후일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이며(15절), 백성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18절).

셋째,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시기 적절한 때는 일벌 백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종의 간교한 술책을 교정시키고, 자녀의 악을 종식시키며(15,17절), 백성의 방자함을 고쳐줍니다(18절). 그리하여 충성스러운 종, 부모에게 기쁨과 효를 다하는 자녀(17절),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백성(18절)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처벌받는 자녀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납득시켜야 합니다.

우리 수하의 사람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온유와 엄위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랑과 권고의 말, 또 한편으로는 엄정한 꾸지람과 징계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가르침을 잘 받고 잘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30:5)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5절). '순전하다' 함은 거짓이 없고 티가 없으며, 오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완전하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는 순전한 말씀이 주는 유익은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5절). 성령의 감인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 무기가 될 뿐 아니라 거듭남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우리의 생활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으로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 영원하고 순전한 말씀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먼저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성도님을 든든히 세우셔서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행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당회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30:8)

나의 삶을 걸고, 생의 황혼기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8절의 아굴의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타인에게 피해와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생활을 위한 간구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자신의 간구가 일평생 일관되게 지속될 것임을 7절에서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며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난하지 않은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난은 인간을 궁색하게 만들고 때로 불의의 범죄를 낳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아굴은 9절에서 너무 가난하여 범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는 삶,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충당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마 6:11).

셋째, 재물 축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인간을 방자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9절) 두렵기 때문에 8절에서 부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축적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8절)라는 겸손과 자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일평생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원숙해 질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②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후임 담임목사를 속히 보내 주소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31:4)

사람들이 가진 힘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힘을 어디에 바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힘을 쓰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정하여 주신 관계 외의 남녀간의 일은 악한 일이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거미줄에 걸리는 나비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에겐 좋아 보여도 그 뒤에는 피할 수 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 걸리기만 하면 빠져 나올 길이 없이 육과 영혼이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에도 힘을 써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 싸움입니다.

둘째,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두 번 먹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술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법도 잊어 버리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도 판단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서 가슴 태우며 사는 사람들, 가난하여 스스로 일어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옳지 못한 남녀관계와 술은 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31:10)

민족의 앞날은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근면하고 사랑이 넘치는 미래가 될 것인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현숙할 때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였다가 공급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곳을 미리미리 살피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집안 안팎의 일들을 규모있게 관리하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나갑니다. 부지런한 아내가 될 때 그 가족들은 행복의 보금자리에 날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둘째, 현숙한 여인은 인애합니다. 자신의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그 식구들도 이기적이 됩니다. 그 마음 속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돕는 손길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인애를 갖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성공하더라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유익하지 못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셋째, 현숙한 여인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서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조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은 물론 남편을 위하여서도 조언하여 남편을 올바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조합니다. 아내들이 정직한 소득만을 갖고 살기를 힘쓸 때 이 민족이 참다운 개혁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1:3)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헛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일생을 통하여 열심히 한 일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 것이 밝혀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첫째, 세상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은 헛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들은 참된 유익이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세상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여야 그 일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세상 일만 좇아 가다 실망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욕구를 끝없이 채우는 것도 헛됩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며 그 욕구를 채우려다가 인생은 끝이 납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욕구를 끝없이 채우려는 헛된 추구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헛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참으로 가치있게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데만 도움이 될 뿐 인간의 영원한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적 일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2:1)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세상적 기쁨도 헛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즐겁게 사는 사람을 알아 줍니다. 재미있는 일을 많이 갖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잘 하고, 그만한 물질적 시간적 여유도 갖고 있으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역지로 웃기는 웃음도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 웃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역지로 일시적으로 웃기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현실을 잊게 만들어 웃기는 바보들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헛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한 쾌락도 헛된 일입니다. 육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육신을 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이 그러한 것들에 젖어 들면 육신은 질병에 빠져듭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한 순간 좋아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독이 되어 자신을 망쳐 버립니다.

셋째, 세상의 사업과 부도 헛됩니다. 사업 자체에 재미를 붙이고 살면서 사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이나, 포도원이나 보배나, 공장이나, 사업이나, 학문이나, 회사나 인생의 목적이 되기에 허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인생보다 못하며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위한 진정한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가다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2:22)

똑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점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평과 불만에 짓눌려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의 헛된 것들을 좇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수한 재물이 헛되다’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물의 가치와 유용함은 결코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부(富)하려는 마음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등은 우리 인생의 짐을 가중시키는 헛된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 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악한 꾀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귀히 여기고 훌륭한 처세술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악한 꾀들을 단호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모든 염려가 헛되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삶을 이루어 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헛된 것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3:1)

우리 주위를 돌아 보면, 참으로 애를 쓰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나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다는 주어진 성공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탄식의 소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로 갈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끼고 또 아끼지 아니하면 충실한 인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현재의 일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의 일들은 현재에 충성된 사람들에게라야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만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성실과 인내로 이루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성실과 인내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 (3:17)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보다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근본 원칙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달려가야 목적지에 순탄하게 이를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고서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있게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시험의 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성취만 이루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꺾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우리가 아무리 강한 힘과 많은 재물과 높은 권세를 자랑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 볼 때에 모든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향하도록 지켜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 ₂(4:9)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듭난 삶을 이루어 가게 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모든 경우에 반드시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죄를 짓는 일에 두 사람이 함께 하여서 더욱 심각한 범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서로를 위해 진정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한’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찾아가 섬기며 베푸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먼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의 수고를 풍성히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나누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 』(5:1)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죄물은 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믿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며 우리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이나 헛된 말을 많이 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 얻지 못하였으므로 ...’ (6:2)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할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귀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부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귀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백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해도 먹는 것만 탐하다가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탐욕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지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혜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들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 이와 같이 됨이라 ...』(7:2)

전도자는 본문에서 다섯 가지 더 좋은 것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인류들에게 그 이름이 명예롭게 남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잊혀지거나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후손들에게 명예롭고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일평생 죄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죽으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지혜자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련한 자의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시작만 해놓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끝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시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²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 지혜자도 되지 말라 ... 패망하겠느냐 (7:16)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도에서 지나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 법칙, 삶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지나쳤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와 역할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국방은 군인이, 공부는 학자가, 종교는 종교인이 맡아야 합니다. 부모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어 주신 선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지나친 삶을 피할 수가 있으며,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의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나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8:1)

1절 말씀에, 지혜자 곧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 인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 번민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심령이 평안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얼굴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얼굴에 평화의 증거인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을 무리하게 살지 않고 사리를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이 또한 평안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그러한 사람은 권위를 거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2절 이하에서 왕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왕을 가리켜서 어떤 해석가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군주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이하에서 볼 때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사리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8:17)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거나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애가 전부이고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애는 내세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내세에 있을 영원한 생애를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애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한 자는 영원한 복락의 삶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에 이끌려 살아 가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생으로 결판이 납니다. 확실하고도 영원한 심판은 내세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서는 때때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될 때에 함부로 판단하는 경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애써 궁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17절)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날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7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이다 ... 9(9:10)

본문에서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를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국이 일반이라는 말(2절)을 잘못 이해하여 선하게 산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니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잘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생을 선하게 살아가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면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의 선한 동기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즉시로 보상을 받고 산다면 보지 않고도 믿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하는 자는 뉘우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선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 ㄷ(9:12)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건강과 돈과 명예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무지한 사람보다는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 성읍을 전쟁의 멸망으로부터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라도 돈이 없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5-16절).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혹자는 지혜로 모략은 얻어 내지만 돈은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지만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대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황제의 시기와 우연은 누구에게라도 임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계산대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지만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소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ㄹ(10:12)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2절). 본문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각각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우매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에 의와 진리의 세계를 좇고 찾으나, 우매자는 불의의 세상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술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3, 12-14절). 본문 3절에 보면, 우매자는 자신의 우매한 것을 말로써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12절 이하를 보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며(12절), 그 시작과 끝이 우매하다고 했고(13절),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14절). 그러나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하였습니다(12절). 성도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 행동이 서로 다릅니다(4, 15절). 본문 4절에서 '공순(공손함)'이란 말이 두 부류의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매자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대항하거나 거역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공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매자의 행동은 사람을 곤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공순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참 지혜자가 되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공순한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②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청년이여 …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11:9)

청년의 때는 가장 원기 왕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앞에는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인생의 향로를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근심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10절상). 본문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근심으로 하여금 청년의 마음에서 떠나 보내야 할 것을 말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질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변하는 사회 현상과 가치체계 속에서 젊은이들은 일종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이야말로 젊은이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릇된 것입니다.

둘째, 악으로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10절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전도자는 악으로 하여금 그 몸에서 떠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으로 그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청년들은 악한 정욕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9절).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참나적인 쾌락에 빠져 들고서도 그 폐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악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항상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근심과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12:1)

우리가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에 거대한 영향을 줍니다. 본문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젊음의 때는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젊음의 가장 빛나는 이상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둘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수족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3절), 삶의 온갖 의욕이 상실되는(5, 6절) 노년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려 해도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실 때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여서(계 16:15) 구원의 문이 닫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일 열심히 신앙 생활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창조자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젊은이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여 충성되이 봉사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⁷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15)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높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신부는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기쁨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높고 순결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4절에서 신부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를 날로 더해 가야 합니다. 영적 유아기와 같은 초보적인 사랑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가야 합니다.

셋째, 외모보다 중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노동으로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랑되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순결하고 깊은 곳으로 인도되어 중심을 보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2:15)

본문에 언급된 '작은 여우'는 성도된 우리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대적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한 대적인 '여우'를 잡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작은 죄악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나 염려, 이기심이나 교만, 미움이나 시기, 거짓말, 질투와 같은 작은 죄악 하나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큰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죄악의 요소를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신랑되신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포도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와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여우', 즉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는 작은 죄악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주님과 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2 내가 밤에 침실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 (3:1)

본문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는 술람미 여인의 애타는 노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첫째,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전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같은 태도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술람미 여인처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습니다. 죄짐을 지고 세상을 헤메는 성도가 주님을 찾는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만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셋째, 찾은 후에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얼마되지 않아 신앙의 좌절을 겪는데 그것은 만난 주님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자족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툇대를 향해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소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4:10)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랑의 노래로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타인에게 향기로우음을 끼치는 삶이요(10, 11절), 술람미 여인처럼 타인에게 향기를 끼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주님이 몸소 보여 주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13, 14절).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의 인격과 그녀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열매와 향품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셋째, 깨끗한 삶입니다(15절). 성도로 상징되는 신부를 본문에서는 샘과 생수의 우물과 시내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깨끗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샘과 우물과 시내는 깨끗해야 사람들이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깨끗한 삶을 살 때 주위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향기로우음을 끼치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 ▶ 기도 제목 / ①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5:2)

본문은 신부가 신랑을 올바로 맞이하지 못하고 돌려 보내는 안타까운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신랑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신부는 잠자는 것 같았지만 실은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신랑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신부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 그 사랑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깨어 있는 자이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이며, 마음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6:3)

신랑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함께 신랑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신랑을 찾아 헤매던 신부는 마침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금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주님은 가까이 찾아 오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공홀과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 크신 공홀을 베푸실 것이며, 간절한 심정으로 사랑을 요구할 때에 부드럽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미 과거에 꾸며 놓았던 동산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랑되신 주님은 까마득히 먼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 신부와 사랑을 나누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향기를 격찬하던 그 동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신랑이 그녀에게 속했고, 그녀는 신랑에게 속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녀의 사랑고백을 들은 신랑의 마음 또한, 신부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합일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아낌없는 찬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3절).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신부입니다. 신랑되신 주님이 찾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것을 결코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부른다고 해서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7:10)

7장의 내용은 부부의 순결한 육체적인 관계가 숨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남녀의 부부생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가서가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인 부부간의 결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성도와 주님의 밀착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아무에게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그 몸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모두 보여주기 전에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없고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도를 통하여 무한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되 죄와 더러움을 단절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나깨나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랑되신 주님은 그 성도를 무척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과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갈구하며 그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하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 (8:14)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장성하여 성벽과 망대처럼, 순결하며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보기에 어느 한 군데도 나무랄 데가 없는 신부였습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지극했고, 그 모든 사랑이 신랑을 향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결국 신랑의 한없는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사과 나무 아래서부터 줄곧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했을 때부터 줄곧 받아왔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붙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에서 땀흘려 일하다가 피곤했던 여자, 태양 빛에 얼굴이 그을은 농부의 딸이었던 그 여자에게 다가온 청년은 누구였습니까? 준수한 그 남자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지체 높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의 노예였습니다. 영혼은 병들고 피곤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었을 때,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신부된 우리의 가슴에서 영원히 불타 오르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산을 급하게 달려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을 기다림같이,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며 영원불멸한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없이 살 수 없는 성숙한 사랑을 주소서. ② 제2교 육관과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 공사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③ 4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5월에도 사랑과 은혜로써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신명기(1)

읽을 말씀 / 신명기 4장 32-40절

찬 송 / 410, 409장

◆ 함께 읽기 ◆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세 개의 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모세 오경의 앞 부분을 반복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상 특징은 언약문서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언약문서의 요소는 ① 전문 ② 역사적인 서언 ③ 일반적인 약정 ④ 구체적인 약정 ⑤ 신의 중언 ⑥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주와 그의 선택된 백성 사이에 있는 연대성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신인관계에 있으며, 시내산 언약은 이 언약의 관계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정기적으로 새로워져야 했으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께 새롭고 전적인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명기의 구조 ◆

1. 서두의 회고(1-4장)
2. 언약을 해설함(5-26장)
 - 1) 기본 원칙들(5-10장)
 - 2) 세부적인 요구(11-26장)
3. 이스라엘에게 세세히 이야기된 율법; 축복과 저주(27-28장)
4. 영원한 도전을 주는 언약(29-31장)
5. 모세의 노래와 마지막 축복(32-34장)

◆ 신명기 본문 연구 ◆

1. 서두의 회고(1-4장)

- 1)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타난 과거를 회상하는 1장의 주제들(신 1장)
 - 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8절)?
 - ②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과 지도자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하도록 세운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9, 12절)?
 - ③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26-28, 32절)?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이유로 복을 받았습니까(36, 38절)?

2)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타나는 방랑과 최초의 고백(신 2장)

- 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7절)?
- ② 광야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14-15절)?
- ③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배경은 무엇입니까(25, 36절)?

3)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회고(신 3장)

- ① 정복당한 바산 왕 옥이 있던 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5절, 참조 11절)?
- ②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는 누구였으며, 그것은 누가 주신 기업이었습니까(16, 18절)?
- ③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권면을 남겨 주었습니까(21-22절)?

4) 회고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주는 순종의 권면(신 4장)

- 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2, 6, 9절)?
 - 가. 2절:
 - 나. 6절:
 - 다. 9절:

②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3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을 금하는 것이었습니까?

③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백성들 앞에서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39, 40절)?

◆ 함께 나누기 ◆

1. 신명기 2:7절의 주제는 빌립보서 4:10-20절에서 바울의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어보십시오.
2.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어떤 말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2 과

신명기(2)

읽을 말씀 / 신명기 6장 4-9절
찬 송 / 399, 235장

2. 언약을 해설함(5-26장)

5) 기본원칙들(5-10장)

- ①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4계명은 출20장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까(5장 15절)?
- ② '들으라' 로 시작되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받들어야 했으며, 이런 자세가 주는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6장 4-9절)?

가. 가정에서나 거리에서 나누는 일상의 대화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7절)

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법이 자기 의식의 중심점이 되어야(8절)

다. 말씀이 가정생활에서는 명백한 권위가 됨(9절)을 드러내 보아야 한다.

③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7장 8절)?

④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행위들을 설명해 봅시다(8장).

가. 인도하심(2, 15절)

나. 낮추심(2, 3절)

다. 시험하심(2, 16절)

라. 알게 하심(3절)

마. 징계하심(5절)

바.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14절)

사. 먹이시고 물을 주심(15, 16절)

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9장 5절)?

⑥ 역사에서 얻는 교훈에 대한 모세의 개관을 배경으로 하고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및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10장 12-13절)?

6) 세부적인 요구(11-26장)

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11장 27절)?

②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릴 장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12장 5,11절;단 하나의 성소)?

③ 칠년마다 부채를 면제하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채주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15장 1,5절)?

④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금해야 할 가중한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금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8장 9-14절)?

⑤ 가정의 성결을 세우기 위한 규례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하도록 교훈을 주셨습니까(21장 18-21절)?

⑥ 여호와와 거룩한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23장).

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 사고나 병으로 그렇게 된 사람
이라기 보다는 이교도의 종교의식을 따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17-18절).

나. 사생자 :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이를 가리킴

다. 암몬과 모압사람 : 이스라엘을 영접지 않으며, 그들을 저주함

⑦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첫 소산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26장 10절)?

◆ 함께 나누기 ◆

1. 신명기 12장 2, 3절은 악한 종교의 신앙을 땅에서든 마음에서도느 철저히 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요이 10, 11절)? 지금 우리들은 다른 종교나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2.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못 본 체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비교. 마 25:31-46).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 3 과

신명기(3)

읽을 말씀 / 신명기 28장 1-6절

찬 송 / 262, 336장

3. 이스라엘에게 세세히 이야기된 율법; 축복과 저주(27-28장)

7) 그리심산과 에발산(27장; 참조. 11장 26-32절)

- 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27장 4, 7절)?
- ②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27장 2-3절)?
- ③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27장 7절)?

④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는 어떤 죄악들에 대한 것인지 다음 구절을 따라 살펴 보십시오.

가. 15절 : 가장 큰 우상숭배의 죄

나. 16절 :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

다. 17-19절 : 사회적인 불의

라. 20-23절 : 성적인 타락

마. 24-25절 : 이웃을 암살하거나 암살하기 위해 뇌물을 받는 죄

바. 26절 :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

사. 백성들의 화답 : 아멘(26절)

⑤ 복과 저주는 어떤 산들에서 선포되었습니까(11장 29절)? 마주보는 두 산이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8) 축복과 저주(28장)

① 복을 받는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어떤 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 4절 :

나. 5절 :

다. 11절 :

라. 12-13절 :

② 반대로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까?

가. 16절 :

나. 17절 :

다. 18절 :

라. 19절 :

③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0절)?

④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결과들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15-68절)?

가. 하나님은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63절)?

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의뢰하였습니까(52절)?

다. 이런 자들의 신앙적인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47절)?

라. 이런 자들의 최종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64절)?

◆ 함께 나누기 ◆

1.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는 본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보다도 '저주'를 더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구약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28장의 경고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 저주의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4 과

신명기(4)

읽을 말씀 / 신명기 31장 1-8절
찬 송 / 342, 348장

4. 영원한 도전을 주는 언약(29-31장)

9)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29-30장)

- ① 모세가 다시 한 번 언약을 새로이 환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29장 2-4절)?
- ② 불신앙과 우상숭배는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29장 18절)?
- ③ 비록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30장 1-5절)?
- ④ 그러나 백성들이 돌아올지라도 마음이 철저히 변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또 다시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님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안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30장 6-10절)?

가. 6절 :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

나. 7절 : 대적들에게 저주를 내리심

다. 8절 : 순종하게 하심

라. 9-10절 : 백성들을 기뻐하심

마. 이 모든 약속들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왜 인생들은 스스로
이같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

⑤ 변화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30장 14절)?

10) 후계자를 세움(31장)

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권면의 말씀 중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31장 6-8절)?

②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그에 따른 복과 저주를 상기
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두 가지 증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 19-23절 : 증거의 노래

나. 24-26절 : 언약궤 곁에 놓은 율법책(이는 먼제년, 회년이 될 때마
다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만들었다(9-13절).

5. 모세의 노래와 마지막 축복(32-34장)

11) 모세의 노래(32장)

- 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다고 노래했습니까(32장 11-12절)?
- ②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으며 (15절), 그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까(17절)?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39절)?

12) 지파들을 축복함(33장)

- ①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 마쳐진 후에 26-29절로 이르는 결론의 과정에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 26절 :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

나. 27절 :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다. 29절 :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므로 참된 행복자인 이스라엘

- ② 지파 가운데 시므온은 특별한 이유없이 누락된 반면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동시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쉽게 죄와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 모세의 죽음(34장)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그의 세월은 40년을 주기로 3구분 될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요,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훈련

의 시대요, 마지막 40년은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시대를 지나온 지도자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① 34장 10절 :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

② 34장 12절 : 권능과 위엄을 행할 강한 능력의 소유자이었으나, 극히 온유한 사람(민 12:3)

◆ 함께 나누기 ◆

1.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을 놓아두신 것을 볼 때 (신 30장 15-20절), 신앙은 우리가 이것 저것을 아무렇게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모세의 삶은 영화와 평안의 길이었다기 보다는 가난과 고독과 좌절들을 경험하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훈련기간은 그의 인생의 1/3(40년)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련되어 지지 않고 당장에 무엇인가를 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